

가계의 경제적 위기관리행동과 관련변수

박 명 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

I. 서론

가계의 경제적 위기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고 등 개인의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도 발생하지만, 특정 개인 혹은 가계의 잘못된 재무 관리에 의해서도 유발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위기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재무관리 상태 등 개인적 요인을 분석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계의 경제적 위기관리 행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대상자들의 위기관리행동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 대상자들의 경제적 위기관리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계재무 안전성과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은 경제적 위기관리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가계재무 안전성(소득의크기, 소득의 규칙성),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4문항 5점 리커트 척도) 및 가계의 경제적 위기관리 행동(5문항 5점 리커트 척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20대~40대 주부로서 2001년 9월 15일~30일에 걸쳐 인터넷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총 619명의 응답자료 중 내용 기제가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598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상관관계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들의 경제적 위기관리행동 수준은 평균 점수 2.80(표준편차 .68)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위기관리 행동의 항목별로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가 3.42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만일의 경우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2.34로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경제적위기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계재무 안전성과 부부간 재무관리 의사소통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3%였다. 부부간 재무관리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경제적 위기관리 행동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재무 안전성과 경제적 위기관리 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소득의 크기가 클수록 경제적 위기관리 행동점수는 낮은 반면, 소득의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경제적 위기관리 행동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